2026.4.26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 끝
## -복음으로 여는 요엘-

요엘 2:28, 사도행전 2:16-17

정윤돈 목사님

*** 욜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행2:16-17**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교제, 그리고 모든 헌신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세계복음화의 절대목표와 성령의 권능**

1. 제29차 세계선교대회의 응답과 성취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전 세계 80개국에서 현지인 목회자와 사명자 500여 명이 모여 은혜 가운데 선교축제를 열었다. 작년에 비해 참여인원이 훨씬 늘어났으며, 특히 합숙훈련 참가자 중 37%가 외국인 현지인이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하던 수준을 넘어, 우리가 기도해 온 '237나라와 5,000종족'을 향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단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주신 지상명령,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의 역사적 성취이다.

2.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절대목표 설교자 역시 사춘기와 청소년시절, 그리고 대학시절에 많은 고민과 방황을 겪었다. 괜히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기도하면 잠시 평안해졌다가 다시 고민에 빠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오늘 찬양대의 "항상 기뻐하라"는 가사를 보면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지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을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자 모든 문제는 끝이 났다.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목표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 더 이상 개인적인 고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면 전 세계가 나의 선교지가 된다. 가장 맛있는 커피숍에서 성도들과 즐겁게 포럼하고 쉬다 오더라도 빛의 자녀가 머무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절대목표를 갖고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짜증 대신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시작하며 모든 만남마다 응답이 된다.

3. 성령의 능력과 신분 우리의 사업과 학업, 인간관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내 생각과 고집이 성령보다 강하면 흑암과 가난,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 다니며 당하게 된다. 인간은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라. 로마의 250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웃으며 순교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일 때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려 하자 군지휘관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 간수와 죄수들이 다 전도되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이유였다. 사자굴에 던져도 그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기뻐하니 구경하던 로마시민들이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국 로마는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 국교화되며, 칼이 아닌 복음으로 정복당했다. 이것이 성령충만한 자가 누리는 권능이다. 우리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능력을 실제로 누린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청소년시절에는 성령충만을 체험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다.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의 부채문제 등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성령충만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인도 받아 선교와 전도를 할까"하는 거룩한 고민 외에는 다른 세상적인 걱정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4. 선교현장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인도

1) 사소한 응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세밀함 선교대회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체험했다. 등록과정에서 이름표가 잘못 나오는 사소한 해프닝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해 주셨다. 본당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옆 자리가 비어있는 평안한 좌석을 허락하셨다. 비어있는 옆자리를 두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의 착석을 막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2) 끈질긴 사랑으로 맺어진 선교의 열매 현장에서 만난 박종혁 선교사님은 자녀가 아홉 명인데, 그중 오직 한 명인 귀한 딸을 '독생녀'라 부르며 축복했다. 마침 외동아들인 '독생자'를 둔 다른 선교사님 가문과 혼인하게 되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분들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며 박사 학위까지 받았음에도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기 선교사님의 끈질긴 전도가 있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영접할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길과 물질, 방법, 만남의 문이 열린다.

3) 후대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네트워크 대만과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최근 공안에 잡혀 한 달간 고초를 겪고 추방당한 선교사님의 가족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의 딸은 현재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고위직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선교사님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소통해 왔는데 북경 위쪽의 스키장에서 함께 교제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 우리 기성세대가 발판을 깔아주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전쟁하거나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다.

5.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1) 증인이 되는 삶의 여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전 세계 70개 나라의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가보지 못한 나라의 많은 사명자를 만났고, 그들의 요청을 따라 9월에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향할 계획이다. 그곳은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후손들이 살며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받아들인 역사적인 땅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237나라와 5,000종족을 향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2) K-복음의 시대적 사명 하나님은 이 시대에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K-복음'이다. 세계화를 위해 깔아놓으신 문화적 발판 위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얹어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 주인공이 될 줄 믿는다.

**서론 : 성령충만의 실제와 미션**

1. 요엘서 예언의 성취와 '장래 일'의 의미(욜2:28, 사도행전) 약 2,800년 전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예언했다. 자녀들이 성령충만 누리는 가운데 미래를 보고, 미래를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도전을 할 성령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은 85세의 고령에도 "1천만 제자를 세워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꿈을 꾸셨다. 우리 교단이 붙잡은 1천만 제자의 비전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나이는 관계없다. 80세에 부름받아 120세까지 쓰임받은 모세처럼, 우리 모두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길 바란다. 건강과 경제, 산업의 축복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요엘 선지자가 2,800년 전에 예언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다. 당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충만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의 성취이다. 성경에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앞날을 맞추는 점술적 예언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알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발견한다면 인생의 모든 불필요한 갈등과 방황은 사라지게 된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자굴이나 풀무불 앞에서 떨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와 후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순교적 신앙을 소유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겠다고 타협할 수 있겠으나 성령충만한 다니엘은 자신의 생사보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했다. 우리 역시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 우리가 축구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이미 우리 팀이 이긴 결과를 알고 있다면 경기 도중 위기가 와도 전혀 떨리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성령충만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미리 보게 된다.

2.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교회 역사를 보면 서방교회(로마가톨릭 중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했다. 반면 동방교회(비잔티움 중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그 결과 동방교회 지역의 문화는 천 년 이상 더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연약하게 안겨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과 지옥,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내 인생과 가정, 삶과 산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황제 위의 황제이시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도 "황제를 살리는 황제 같은 선교사"라는 표현이 나왔듯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왕이나 로마의 황제들도 결국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들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통치자들을 깨우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황제 위의 황제'와 같은 고귀한 영적 신분을 가진 자들임을 확신해야 한다.

3.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성령충만 주의 자녀인 성도들은 결코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짜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눈빛부터 달라져야 하고, 마음속에 설렘과 영적인 힘이 넘쳐나야 한다. 그러나 성령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에 눌려 "왜 나는 안될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성령충만은 말씀충만과 기도충만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체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

다. 따라서 성도가 할 일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짜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최근 한 고등학생 새신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아기가 배고플 때 울듯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어버리라"고 조언했다. 성경지식이 부족하거나 기도의 형식을 몰라도 상관없다. 인생의 답답함,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보기 싫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쏟아놓으면 된다. 기도의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한 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더하면 완벽하다. 이처럼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깊은 기도와 호흡은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다. 깊은 호흡과 더불어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길을 보여주신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면 인생의 갈등과 염려는 더 이상 불필요해진다. 영적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러한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문제와 갈등, 염려와 근심이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황이 조금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짜증스러운 상황이나 가정의 여러 어려움을 모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모든 고난을 기도로 연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돌아온다. 고통의 현장을 기도로 통과한 자가 결국 그 응답을 증거하는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 1.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영적 개혁

1) 원조문서 선지자 요엘과 종교개혁의 역사 구약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다. 그중 요엘 선지자는 정확한 활동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학자들은 그를 가장 초기의 '문서선지자'로 평가한다. 즉,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긴 원조 격인 인물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2,700~2,800년 전의 인물로 보고 있다. 모든 일에는 '원조'와 흐름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주역은 루터와 칼뱅(1517년)이지만, 그보다 100년 앞서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라는 신학자가 있었다.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던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위클리프의 영향은 체코의 얀 후스(Jan Hus)에게 이어졌고, 이들은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쳤다. 비록 위클리프는 사후에 이단으로 몰려 시신이 파헤쳐지고 화형당해 강물에 뿌려지는 수모를 겪었으나 그의 개혁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절묘했다. 위클리프 시대에는 인쇄술이 없어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기에 보급에 한계가 있었으나 루터시대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개혁의 메시지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요엘 선지자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개혁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

2)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재앙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잡신 중 하나로 여겼으며, 여호와의 유일성과 그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때, 현장에는 재앙과 저주, 가난과 전쟁이 닥친다.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 또한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배경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성경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3~4대까지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인간은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 사업을 믿고 살아가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논문 몇 편을 쓰고 책 몇 권을 낸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개인과 후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시작된다.

3)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예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며,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무속인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귀신의 자녀, 종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슬람(무슬림)은 '복종과 순종'을 뜻하며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불평, 불만과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자꾸만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된다.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다신교'라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섭리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섭리이다. 이 비밀을 모르는 국가나 민족은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영적 기근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강성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졌기 때문이다. 반면 그 이름이 희미해질 때 마약, 정신병, 총기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앙이 닥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

4)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와 비전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가미(신, 神)'라고 부르지만,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주에 오직 한 분뿐이라는 유일성을 담고 있어 매우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세계를 살리라는 특명을 주셨다. 20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비행기를 가득 채우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구원의 길 메시지를 영어와 현지어로 준비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선교현장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성경 66권을 설교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준비한 자료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우리는 '될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이름의 핵심은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권능과 믿음이 있을 때 세계복음화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응답이 실재하기를 축원한다.

### 2. 여호와의 이름을 잊을 때 임하는 재앙

1) 메뚜기재앙과 경제적 몰락의 영적 배경 요엘서 앞부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를 때 닥치는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메뚜기재앙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적인 대재앙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사업이 안되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이템의 문제나 노력의 부족을 탓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사기꾼을 만나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곳으로 재물이 빠져 나간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베트남과 같은 나라를 가보면 그곳 사람들은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한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다. 성령충만함이 있어야만 흑암의 권세를 꺾고 모든 재앙과 저주,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 사단은 인간관계를 끊어놓고 지혜를 가로 막으며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속였던 그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어둠을 박살낼 수 있다.

2) 단계적 재앙의 무서움(욜1:4)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쳤을 때 닥친 경제적 어려움은 단계적으로 묘사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는 곡식을 갉아먹는 다양한 해충들이 겹겹이 닥쳐와 모든 소산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경제적 축복을 사단이 모두 가로채 간다. 마지막까지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나라들이 겪는 빈곤이 그 증거이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인해 오랜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광활한 땅과 자원을 가졌음에도 성령의 인도 대신 악령에 이끌린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3) 고난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 우크라이나 예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제자 '보바'를 만났다. 그는 과거 4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공부했던 제자로, 어느덧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넷째가 태어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5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과거 한국이 6·25전쟁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민족으로 세워졌듯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전쟁으로 인해 700만 명의 피난민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그중에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유럽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있다. 유럽 현지인들은 외모가 비슷한 우크라이나 제자들을 통해 더욱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를 세계적인 축복의 기회로 바꾸신다.

4) 끊어진 예배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을 모르면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기름이 다하는 경제적 재앙뿐만 아니라, 예배가 끊어지는 영적 재앙이 닥친다. 요엘 1장 9절에 언급된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예배의 중단을 의미한다.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목회자들 역시 설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사단을 따라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신 것도 더 큰 복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속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 3.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축복

1) 흡족한 축복의 약속(욜2:19)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충만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기서 '흡족하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①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②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없는 완전한 충족상태이다. ③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셔서 모자람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공급을 의미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흡족한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산업과 삶에 임하기를 축원한다.

2)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와 개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나라들 사이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힘이 없어 강대국에 수모를 겪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무기, 정유기술, 반도체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조차 한국의 항공유가 없으면 비행기를 띄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의 중심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 경제와 산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문을 향해서도 이러한 명예와 축복의 응답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3) 대적을 멸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심(욜2:20-21)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북쪽 군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적들과 우리를 망치려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멀리 쫓아내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자 비전(CVDIP)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승리를 미리 보고 도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4) 자연만물과 환경의 풍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도 풍요롭게 하신다. 필리핀 고산족 사역을 하시는 민복기 선교사님 가문의 고백을 들었다. 과거 한국의 산들은 벌거숭이였으나 이제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결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의 축복이다. 복음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5)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욜2:32)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6)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욜3:1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어떤 전쟁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 결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충만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사명, 곧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산업과 후대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